

고로모 축제

호화찬란하게 장식된 8 대의 수레가 도요타시 중심부를 행진하는 ‘고로모 축제’는 고로모 신사를 중심으로 이틀 동안 열리는 축제입니다. 오래전부터 현지인들에게 사랑받아 온 연간 행사로, 10 월의 셋째 주말에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열립니다.

수레는 높이가 약 6m 이고 무게는 5 톤이나 됩니다. 나무 바퀴에 중앙부는 상자 모양으로 되어있고, 상자 앞에는 작은 무대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위에는 지붕 달린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식에는 전통 제등, 옷칠한 들보에 달린 금장식, 상서로운 생물과 식물을 그린 금박 입힌 목각화, 일본과 중국의 역사 및 신화 속 장면이 수놓아진 자수 장식으로 꾸민 대막 등이 사용됩니다. 수레 1 대를 10 명 이상의 수레꾼이 합을 맞춰 조종합니다. 축제 내내 수레꾼들은 리드미컬한 구호에 맞춰 수레를 밀고 당깁니다.

고로모 축제의 역사는 1600 년대 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의 아이치현과 기후현 지역에서는 다른 축제에서도 수레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행에 맞춰 1700 년대 중반에 현재 수레의 원형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778 년 이후, 시내 8 개 마을은 마을만의 수레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현지 주민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고로모 신사에서 고로모 성(현재의 도요타시 미술관)까지 수레를 이동시켜 다이묘를 대접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축제 첫날 ‘신가쿠(試樂, 전야제)’에서는 수레가 각 마을 안을 누비며 이동합니다. 저녁이 되면 참가자들은 수레를 두고 야하기 강에서 몸을 정화한 후, 제등을 들고 고로모 신사에 모여 경내를 7 바퀴 돌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7 은 상서로운 숫자이며, 풍요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둘째 날 ‘혼가쿠(本樂)’에서는 수레를 경내로 끌고 가 신들에게 선보이고 의식과 가구라(무용과 음악)가 행해집니다. 축제는 오후 늦게 최고조에 이르는데, 수레에 탄 수레꾼들이 관객을 향해 형형색색의 색종이를 뿌리며 수레를 힘차게 거리로 끌고 나갑니다. 밤에는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축제는 마무리됩니다.